

## 당나라소설 《규염객전》의 주인공에 대한 논의

오 희 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철저히 주체적립장에서 대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95페이지)

당나라때에 창작된 전기(傳奇)소설로서 《규염객전》이 있다. 《규염객전》은 수나라 말기, 당나라 초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규염객과 리정, 홍불, 양소, 문황 등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이다.

지난 시기 소설 《규염객전》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논의되였다. 그것은 우선 누구의 작품인가 하는 작가문제이고 다음은 누구를 형상한 작품인가 하는 주인공문제였다.

지금 내외학계에서는 소설 《규염객전》을 일단 두광정(850—933)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건에서 여기서는 그것을 대체로 긍정하면서 주인공문제만을 논의하려고 한다.

지난 시기 소설 《규염객전》이 당나라 황제였던 리세민을 주인공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비교하고 작품이 지향한 사상을 깊이 음미해보면 이것이 고구려의 애국명장 연개소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애국명장 연개소문은 사대주의적경향으로 기울어지던 투항분자들을 제거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였으며 외적의 군사적위협과 무력침공을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고구려의 위용을 크게 떨치였다. 그러므로 당시는 물론 이후시기들에도 연개소문에 대한 사실자료와 설화적인 이야기가 많이 창작되어 내외에 널리 전해졌다. 당나라 말기에 창작된 전기소설 《규염객전》은 이러한 설화적인 이야기에 토대하여 창작된 작품이였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것이 마치 《문황》으로 알려졌던 리세민을 주인공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이라고 하였다.

소설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수나라 양제가 강도(江都)로 거동할 때에 사공벼슬에 있는 양소더러 도읍인 서경을 지키게 하였다. 양소는 권세와 부귀를 믿고 몹시 교만하게 행동하였다. 그는 《신하로서의 도리》도 지키지 않았고 공경대부들을 비롯한 고관들을 만날 때에도 결상에 걸터앉아서 건방지게 놀았다.

어느날 리정이 요긴한 일이 있어서 그를 찾아갔는데 역시 교만하게 행동하는것이였다. 그것을 본 리정이 《지금 천하가 어지러워 영웅호걸들이 저마다 떨쳐일어나 다투고있다. 그대는 나라에서 신임하는 신하인데 영웅호걸들과 사귀기 위해 마음을 써야 할것이다. 그런데 점잖은 손님들을 그렇게 대하여서야 되겠는가.》고 하였더니 양소는 정색하여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였다.

양소에게는 홍불이라는 아름다운 기생이 있었다. 리정이 양소와 이야기할 때에 곁에 있던 홍불은 리정을 의미있게 바라보고있더니 리정이 나을 때에 따라나오며 거처하고있는 곳을 물었다. 그날밤 리정을 찾아온 홍불은 《저는 양씨의 시녀인 홍불입니다.》라고 하더니 세

상에서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으나 당신같이 대바른 사람은 없었다고 하면서 의탁하고 살아갈 결심이라고 말하였다. 리정은 그를 떼어놓을수가 없어서 남북차림에 장씨라고 변성명을 시키고 함께 떠났다.

리정과 홍불이 어느 한 고장에 이르러 객사에서 묵고있는데 구레나룻이 룡의 수염처럼 뿔뿔하게 돋은 사나이 하나가 하늘소를 타고 객사에 들어왔다. 그는 가족부대를 내려놓더니 배개를 베고 누워서 리정과 홍불을 바라보는것이였다. 그가 바로 규염객이였다. 리정이 그에게 이름이 무어냐고 물었더니 《내 성은 장가요.》라고 통명스럽게 대답하는것이였다. 그러자 홍불은 《저의 성도 장가입니다.》라고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오랍누이로 되자고 청하였다. 규염객은 《오늘 우연히 누이 한분을 만났군.》라고 하고는 두사람과 인사를 나누었다. 세사람이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규염객은 가족부대안에서 사람의 염통과 간을 꺼내여 날이 선 비수로 그것을 저미여먹는것이였다. 식사가 끝나자 규염객은 리정에게 《그대를 보니 몹시 가난한 선비 같아보이는데 어째서 그 꼴이 되었소?》라고 물었다. 리정이 자기의 처지를 대충 이야기해주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셈이요?》라고 규염객이 다시 묻자 리정이 대답하기를 《태원으로 가볼가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규염객이 《태원에 비범한 인물이 있다는 말을 들었소?》라고 묻는것이였다.

《들었습니다.》라고 하자 《그 사람의 성은 뭐요?》라고 물었다.

《나와 같습니다.》

《나이는 몇살이요?》

《스무살이 되나마나합니다.》

《뭘 하는 사람이요?》

《태원장군의 아들입니다.》

《짐작이 되오. 나도 한번 만나보게 해줄수 없겠소?》

《류문정이라는 사람이 내 친구인데 그와 가깝게 지냅니다. 그에게 말하면 만날수 있을 겁니다.》

《언제 태원으로 가겠소?》

《래일 가겠습니다.》

《래일 날이 썰무렵 분양교에서 나를 기다려주오.》

규염객은 이렇게 말하더니 하늘소를 타고 떠나갔다.

리정과 홍불은 규염객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였다. 그러면서 이튿날 새벽에 분양교로 가니 규염객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있었다. 리정은 규염객을 데리고 류문정을 찾아갔다. 규염객은 저고리바람에 신발도 신지 않은채 류문정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용모와 풍채는 범상치 않았다. 리정에게서 찾아온 이유를 듣고난 류문정은 그는 과연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를 보게 해줄테니 아무날 분양교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리정은 약속한 날 규염객과 함께 분양교로 다시 갔다. 류문정은 태원장군의 아들에게 바둑구경을 오라고 편지를 써보내고는 어떤 도사와 마주앉아 바둑을 두기 시작하였다. 조금 있다가 태원장군의 아들인 문황이 나타났다. 그러자 도사는 바둑판을 거두고서 규염객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은 그대의 세상이 아니니 다른 곳에서 판을 벌리도록 힘쓸것이고 여기서는 단념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규염객은 리정과 함께 다시 서경으로 돌아왔다. 헤어지면서 규염객은 리정에게 아무 날 누님과 함께 우리 집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리정이 홍불과 함께 규염객을 찾

아가 자그마한 널대문앞에서 주인을 부르니 시중군이 나와 손님을 안내하였다. 중문에 들어서니 화려하기 그지없었고 청의동자 스무명이 시중을 들었다. 규염객은 사모관대에 자색 도포를 입고 안해와 함께 손님을 맞이하는데 화려하기가 왕후장상과 다를바 없었다. 주인은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잔치를 차렸다. 잔치가 끝나자 하인들이 비단보자기를 씌운 스무개의 평상을 들고나왔다. 거기에는 각종 문서들과 열쇠꾸레미들이 놓여있었다. 규염객은 그것을 가리키며 리정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진귀한 보물들이요. 내것인데 죄다 드리겠소. 내 본시 이 땅에서 뜻을 이루어보려고 두서너해째 싸움도 해서 얼마간 공을 세웠건만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인데야 여기에 머물러 무얼 하겠소? 태원의 리씨는 참말 영특한 인물이에요.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나라를 평정할것이에요. 그대도 재주가 있으니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를 보좌하면 반드시 신하로서 할바를 다할수 있을것이고 누님도 곁에서 잘 도울거요. 누님이 아니고서는 그대를 가려볼수 없었고 그대가 아니고서는 누님을 만날수 없었소. 내가 주는 이 보물을 가지고 참된 임금을 보좌하여 공을 세우시오. 앞으로 여라문해가 지나 동남쪽 수천리밖에서 일이 생기면 내가 뜻을 이룬줄로 아오.》라고 하더니 하인들을 정렬하게 하고 《이제부터는 이분들이 너희들의 주인이니 잘들 모시여라.》라고 하였다. 말을 마친 규염객은 안해와 함께 군복차림으로 말우에 올라 종 한명만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몇걸음 가더니 그들은 모두 사라지고 더는 보이지 않았다. 리정은 규염객이 준 재물로 부호가 되었고 문황을 도와 그의 거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었다. 그후 리정은 좌복야, 평장사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다.

몇해가 지나 동남쪽오랑캐들이 사신을 보내어 《규염객이 바다배 천척에 무장을 갖춘 군사 수십만으로 부여국에 쳐들어가 임금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리정은 집에 돌아와 규염객이 뜻을 이루었음을 홍불에게 알려준 다음 동남쪽을 향해 술을 붓고 절을 하였다.((당인소설》상해고적출판사, 1983년)

지난 시기에는 이 작품을 단순히 리세민을 《찬양》함으로써 기울어져가는 당왕조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되었다고 해설하였다.

그러한 실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두광정의 〈규염객전〉은 양소가 총애하던 기생 홍불이 양소의 집에서 대담하게 뛰쳐나와 리정과 사랑을 맺는 이야기와 임금이 될 뜻을 품은 규염객이 해외에 나가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규염객의 형상을 통하여 작가는 당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한 리세민을 찬양함으로써 기울어져가는 당왕조를 강화하려는 작가의 리상을 반영하고있다.》(《중국문학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6(2007)년)

소설 《규염객전》에 대한 《중국문학사》의 해설에서는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이야기되지 않고 주인공의 상대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문황》에 대한 《찬양》만을 이야기하고있다.

소설은 이야기형식의 작품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고전소설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야기는 대체로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고있으며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감정과 지향이 반영되어있고 주인공은 그것을 체현한 인물이다. 소설 《규염객전》이 수나라 말기, 당나라 초기의 생활을 보여주고있다면 당시 사람들의 감정과 지향은 어떤것이였으며 그 주인공은 누구이겠는가. 우리 나라 중세문인들도 《규염객전》의 주인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었다.

지난 시기 고전소설 《규염객전》에서 주인공 규염객이 누구를 형상한 인물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견해가 있었다. 그것은 《규염객》을 당나라의 리세민으로 보는 견해와 고구려의 애국명장인 연개소문으로 보는 견해였다.

우리 나라 중세문인들속에서도 규염객을 리세민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

고려시기 리승휴(1224-1300)는 《제왕운기》에서 《하늘이 문득 리씨의 당나라를 세울 마음을 가졌으니 나이어린 규염이 의로운 군사를 일으킴을 재촉하였노라.》\*<sup>①</sup>라고 쓰고 《나이어린 규염객》에 대하여 이렇게 해설하였다.

《태종황제를 말한다. 그때 나이가 열여덟살이었는데 당공(당나라를 세운 리연을 가리킴-인용자)에게 의로운 군사를 일으킬것을 권고하였다. 이름은 세민이다.》\*<sup>②</sup>

\*① 《皇天偏啓李唐心 年少虬髯催舉義》(《帝王韻紀》上)

\*② 《謂太宗皇帝 時年十八 勸唐公舉義 名世民》(우와 같음)

또한 조선봉건왕조 후기에 김창흡(1653-1722)도 《규염객》을 당나라 리세민으로 인정하여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김창업(1658-1722)에게 이런 시를 지어주었다.

《천추에 대답한 양만춘은

화살로 규염을 쏘아 눈알을 뽑았어라》\*<sup>①</sup>

이것은 고구려때에 안시성주 양만춘이 당태종 리세민을 활로 쏘아 눈알을 뽑았다는 이야기를 노래한것이다.

안시성에서 있는 일에 대해 리덕무(1741-1793)는 이렇게 썼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태종이 고구려를 칠 때에 안시성에 이르러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고 한다. <당서>와 <통감>에는 이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당시의 역사말은 관리들이 중국을 위하느라고 숨긴것이니 쓰지 않았다고 이상할것은 없다.》\*<sup>②</sup>

결국 김창흡도 당태종 리세민을 《규염객》으로 보았던것이다.

\*① 《三淵送老稼齋入燕詩 曰千秋大膽楊萬春 箭射虬髯落眸子》(《清脾錄》)

\*② 《世傳唐太宗伐高句麗 至安市城 箭中其目而還 考唐書通鑑皆不載 當時史官必爲中國諱 無怪不書也》(우와 같음)

한편 우리 나라에서 17세기이후 진보적인 사상조류인 실학이 발생하고 실학자들에 의해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실사구시》적인 립장에서 깊이있게 연구되는 과정에 《규염객전》의 중심인물인 규염객이 누구인가를 밝히는데서도 옳바른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신광수(1712-1775)는 고구려-당전쟁시기의 역사적사실을 노래한 《관서악부》의 스물두번째 시에서 이렇게 썼다

규염객은 연개소문이라

...

고려선비들의 이야기에 남아

눈알이요 화살이요 당나라 임금을 비웃었네\*

신광수는 고려때에 문인들속에서 전해지던 이야기, 구체적으로는 리색(1328-1396)의

시 《정관음》(貞觀吟)에서 고구려의 안시성주 양만춘이 당나라 임금인 리세민을 활로 쏘아 눈알을 맞혔다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규염객은 연개소문》이라고 확신하였다.

김창흠도 바로 《정관음》을 넘두에 두고 《규염객》을 리세민이라고 하였으나 신광수는 《규염객》은 고구려의 명장 연개소문이고 리세민이 아니라고 부정하였던 것이다.

\* 《虬髯客是蓋蘇文...留與高麗學士話 玄落白羽笑唐君》(《石北先生集》卷十《關西樂府》)

한편 류득공(1748-?)은 소설 《규염객전》의 주요인물들인 규염객과 홍불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고구려를 잘못 알아 〈하구려〉라 하더니만  
주필산은 푸르는데 군사들은 패하였네  
물어보자 서경기생 홍불아  
규염객은 바로 막리지였지\*<sup>①</sup>

실학과 학자인 류득공은 명백히 소설 《규염객전》을 말하면서 《규염객》은 《막리지》라고 적어서 말하였다. 여기서 《막리지》는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연개소문이 642년에 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차지하였던 벼슬이름이다.\*<sup>②</sup>

\*<sup>①</sup> 《句麗錯料下句麗 駐蹕山青老六師 爲問西京紅拂妓 虬髯客是莫離支》(《二十一都懷古詩》高句麗)

\*<sup>②</sup> 《三國史記》卷四十九

류득공은 삼촌 류금(柳琴)과 함께 여러번 청나라를 다녀온 사람이다. 중국의 고전소설들은 명, 청시기에 향간에서 많이 유행되었었다.

류득공이 《규염객》을 말하면서 서경기생 홍불을 내세우며 그에게 《규염객은 막리지였지》라고 물은것은 우연치 않다. 소설 《규염객전》에서 기생 홍불은 리정과 함께 줄곧 규염객과 상대한 인물이다.

류득공은 소설에 등장하는 《규염객》이 고구려의 애국명장 연개소문이라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홍불에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문장을 꾸미었던 것이다.

류득공은 소설 《규염객전》이 우리 나라에 알려지고 그것이 향간에서 널리 읽히운 사실을 고려하면서 규염객은 연개소문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이다. 류득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나라 패설집에 올라있는 〈규염객전〉은 비록 당나라사람들의 전기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었을것이다. 상고하건대 부여의 지역은 고구려가 통합하였는데 수, 당 시기에는 이른바 부여라는 나라가 없었다. 남쪽오랑캐들이 〈바다배 천척과 용감한 군사 십만이 부여국에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한것은 고구려를 가리켜 부여라고 한것 같다. 생각하건대 개소문은 동부대인의 아들로써 의지와 기상이 굳세고 용맹스러웠다. 수나라 말기의 어지러운 틈을 타서 중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장차 일을 벌리려 하였는데 리세민의 기이한 풍채를 보게 되자 신심을 잃고 동쪽으로 돌아와 군사를 가지고 란리를 일으켜 막리지로 되었었다.》\*

\* 《海東□乘虬髯客傳 雖唐人傳奇 亦必有其人也 按夫餘之地爲高句麗所統 在隋唐之際 更無所謂

夫餘國 南蠻所奏海船千艘甲兵十萬入夫餘國云云 似指高句麗爲夫餘也 意者蓋蘇文以東部大人之子 義氣傑驚 乘隋季之亂 遊歷中國 將有爲也 及見文皇異表 喪氣東還 稱兵作亂 做得莫離支》(《二十一都懷古詩》高句麗)

이처럼 류득공은 우리 나라 패설집들에 올라있는 《규염객전》이 당나라사람들이 쓴 글에서 나온것이기에는 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연개소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규염객이 부여로 갔다고 한것은 고구려를 부여로 잘못 쓴것이라고 하였으며 연개소문이 수나라 말기의 혼란된 정세를 리용하여 중국에 들어가 실정을 알아보고 고구려에 돌아와서 정변을 일으키고 막리지로 되어 실권을 잡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후세에 그대로 전해졌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되었다.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애국적인 력사학자 신채호(1880-1936)는 연개소문의 사회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연개소문은 ... 나이 점점 들때 수나라가 오만하게 루차 침공해움을 보고 분연히 그들을 토벌하여 응징할 포부를 가지고 병법과 무술을 배웠으며 가만히 수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중요한 지방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산천과 요해처들을 비밀리에 기록하여가지고 귀국하였다.》(《아방류리경》)

신채호는 계속하여 옛날책 《계상잡록》(溪上雜錄)과 신광수의 《관서악부》의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소설 《규염객전》에 펼쳐진 이야기는 연개소문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규염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을 종합하여보면 리승휴나 김창흠이 《규염객》을 어째서 리세민으로 인정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구경은 신광수, 류득공, 신채호의 견해가 옳았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소설 《규염객전》에서는 명백히 규염객과 함께 문황이라는 《태원장군의 아들》이 따로 등장한다. 리세민의 아버지인 리연이 한때 수나라조정에서 벼슬을 하여 태원류수로 된적이 있으니 리세민을 가리켜 《태원장군의 아들》이라고 할수 있다. 소설 《규염객전》에서는 류문정의 소개로 《규염객》이 분양교에서 《태원장군의 아들》인 리세민을 만나는것으로 되어있다.

즉 규염객과 별도로 《태원장군의 아들》로 문황이 등장하니 《규염객》이 리세민일수는 없다. 다시말하여 《규염객전》에서 이야기된 《규염객》은 리세민이 아니다.

결국 당나라소설 《규염객전》은 고구려에서 창조되어 전해지던 연개소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꾸민 소설이었다고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규염객전》은 이미 고려시기에 우리 나라에 전해졌고 일부 패설작품에 실려 후세에 알려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당나라사람들은 고구려의 명장 연개소문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다.

당나라 태종 리세민도 《연개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대신들을 살해하였으며 백성들을 학대하니 치지 않을수 없다.》\*<sup>①</sup>고 고구려에 대한 침공의 구실을 찾으면서도 수나라가 당한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않을수 없어 수양제를 따라 고구려에 왔던 정천도를 불러다가 고구려에 대해 물었던것이다. 정천도는 대답하기를 《고구려사람들은 성을 잘 지켜서 성을 쉽게 함락할수 없습니다.》\*<sup>②</sup>라고 하였다.

\*① 《蓋蘇文弑其君 賊其大臣 殘虐其民...不可以不討》(《三國史記》卷四十九 蓋蘇文)

\*② 《十一月帝至洛陽 前宜州刺史鄭天璠致仕 帝以其從隋煬帝伐高句麗 召諧行在問之 對曰…東夷善守城 不可猝下》(《三國史記》卷二十一 高句麗本紀 寶藏王 三年)

또한 당나라사람인 류공권은 자기의 글에서 고구려를 치다가 패하고 전전긍긍하던 당나라 태종에 대하여 《료동성을 칠 때에 고구려와 말같이 군사를 합쳐서 사방 40리에 널려 있는지라 태종이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운 기색을 지었다.》\*①고 하면서 《모든 군사들이 고구려군사들에게 놀리워 기를 펴지 못하게 되자 … 황제는 몹시 두려워하였다.》\*②고 썼다. 이것은 645년에 벌어진 룡동성전투때의 사실을 기록한것이다. 그때 고구려군사들을 총지휘한 사람은 연개소문이었다.

\*① 《駐蹕之役 高句麗與靺鞨合軍 方四十里 太宗望之 有懼色》(《三國史記》卷二十二 高句麗本紀 寶藏王三年)

\*② 《六軍爲高句麗所乘 殆將不振…帝大懼》(우와 같음)

《삼국사기》에는 한편 송나라 신종과 왕안석이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있다.

《송나라 신종이 왕개보와 일을 논의하다가 <태종이 고구려를 쳤는데 어째서 이기지 못하였는가?>고 물었다. 왕개보가 말하기를 <개소문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였습니다.>라고 하니 신종은 <그렇다면 개소문도 재사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나라에 이어 송나라에서도 연개소문을 고구려의 범상치 않은 《재사》로 인정하였고 당나라 태종이 연개소문때문에 고구려에 침범하였다가 섬멸당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당나라 태종은 연개소문을 비상한 인물로 알고있으면서도 《임금을 죽이고 대신들을 살해하였으며 백성들을 학대》한다고 하면서 고구려를 침범하였던것이다.

\* 《宋神宗與王介甫論事 曰太宗伐高句麗 何以不克 介甫曰蓋蘇文非常人也 然則蘇文亦才士也》(《三國史記》卷四十九 蓋蘇文)

소설 《규염객전》은 당나라사람들속에 알려진 이상과 같은 연개소문을 주인공으로 하여 창작되었다.

소설 《규염객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역사적으로 실재한 사람들이다. 리정은 리세민이 신임하는 신하였다. 리세민이 고구려에 대한 침공을 준비하면서 리정을 《행군대총관》으로 삼으려고 하자 그것을 거절하였으며 고구려에 대한 침략도 반대하였다. 소설 《규염객전》에 그려진 규염객과 리정의 관계는 이러한 역사적사실을 바탕으로 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소설 《규염객전》에서 주목되는것은 주인공 규염객을 비상한 인물로 그린것이고 또한 그가 일으킨 정변을 긍정적으로 대하고있는것이다.

《규염객전》에서 규염객은 담대하고 의리있고 사리에 분별있는 인물 다시말하여 용감성과 대담성을 가진 무인일뿐아니라 지혜와 슬기를 가진 능란한 정치가로 내세우고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고구려사람들속에 알려졌던 애국명장 연개소문에 대한 견해였고 그의 정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였다.

《규염객전》에서는 다른 한편 규염객을 포악하고 무지막지한 인간으로 형상하였다. 규염객은 날이 선 비수로 사람의 간과 염통을 저미어먹는다. 그가 늘 가지고다니는 가죽부대에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다. 또한 규염객은 폐절을 모르며 럽치도 없는 인물로 그려졌다.

규염객에 대한 이러한 형상은 당시 당나라사람들속에서 연개소문을 악의에 차서 혈뜬던 사실의 일단을 보여준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면 작가의 사회정치적, 미학적정서적요구에 따라 긍정적으로 찬양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낙인되기도 한다.

소설 《규염객전》에서 규염객에 대한 긍정적인 형상과 부정적인 형상이 엇갈린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이것은 《규염객전》이 당시 고구려인민들속에서 창조전승되였던 연개소문장군의 이야기를 당나라사람들의 립장에서 재가공하여 꾸며놓았기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설 《규염객전》을 통하여 고구려인민들속에서 높이 찬양되던 연개소문과 당나라침략자들이 몹시 두려워하던 연개소문을 함께 찾아보게 된다.

소설 《규염객전》에서 규염객이 《동남쪽》으로 떠나가고 그가 《부여국》을 정벌한 사실을 《동남쪽오랑캐》들이 당나라에 와서 전해주는것으로 이야기를 꾸민것은 창작가의 예술적허구라고 말할수 있다. 당나라는 여러차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가 참패를 당하였다. 당나라 태종은 642년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것을 침략의 구실로 삼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염객이 《부여국》을 정벌하였다고 하고 그 사실을 동남지방의 이민족이 알려주어서야 알았다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규염객전》의 작가는 당시 당나라사람들속에 전해졌던 연개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민족으로서는 수치스러운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외면하기 위하여 고구려와 반대방향인 《동남쪽》과 관련된 이야기를 삽입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작품에 도사가 등장하는것은 작가가 한때 천태산에서 도사노릇을 하였기때문에 삽입한것으로 리해할수 있다.

당나라때에 나온 소설 《규염객전》은 결국 고구려에서 창조하여 전해지던 전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당나라사람들의 감정과 립장에 따라 재구성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연개소문에 의하여 몇차례 섬멸적인 참패를 당한 당나라에서 연개소문에 대한 공포감과 위구심은 매우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개소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작품을 창작하였던것은 연개소문에 대한 이야기가 대외적으로도 널리 전해졌고 사람들속에서 깊은 공감을 받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민족이 낳은 고구려의 애국명장 연개소문이 벌써 오랜 옛날에 외국소설의 주인공으로 되었다는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준다.

우리는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당나라소설 《규염객전》을 깊이 연구하여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에서의 특성을 잘 밝혀내야 할것이며 당나라소설창작에 미친 고구려설화작품들의 커다란 영향에 대하여서도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연개소문, 규염객, 고구려